조선일보 - 1930 . 10. 15/ 4면/ 5단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四)

申南澈

이제 哲學의 一般化에 對한 더 明確하 解答을 要求하지 안흐면 아니 될 줄로 밋는다. 哲學이 끗끗내 絶對 精神의 理念學이요, 第 一 原理의 探究者이며 最究極者, 或은 一般者의 學問이라고 하는 立場에서 잇는 限에는 그리하야 純然한 槪念의 遊戱에서 끗칠 때에는 그것의 一般化는 到底히 企望하지 못할 바이다. 哲學이 그러한 限에는 언제든지 最上位者를 設定하고 그것으로부터 事象을 □□한다. 그것도 언제나 形而上學的이다. 『빌클리히』한 生沽에서 思惟하면서도 그 思惟의 結果는 늘 現實과 遊離한 普遍者의 境地이엿다. 그럼으로 그것은 思索的 天才의 스스로의 王國인 同時에 唯一이엿슴으로 그것을 一般人의 所有로 만들기에는 到底히 不可能한 것이엿다. 그러나 『포일엘밧하』가 그의 『將來의 哲學의 根本命題』의 冒頭에 말한 『近世의 課題는 神의 現實化와 人間化 - 神學의 人間學(Anthro Pologie)에의 轉化와 解消이얏다.』라고 부르짓고 비록 『헤겔』을 一面的으로 하는 評은 드를 망정 神學을 우푸해배한 以後도 哲學은 現實 存在와 그 距離가 다시 업시 接近하게 되엿다. 그리하야 라인江 岸의 二人의 有名한 辨證法的 唯物論者를 거처서 現代에 이르러서는 哲學 더욱이 史的 唯物論이 그것의 緊密한 現實的 解決과 實踐的 絶大한 武器로써 一般의 所有가 되어 잇슴을 目前 할 때 그 所以然의 不□ 할 事實을 發見 할 것이다. 換言하면 哲學의 一般化도 그것의 實踐的 意義를 度外視하고도 企圖하지 못할 事實이다. 現在에 私的 唯物論이 絶大한 大衆的 支持 下에서 理解되여가는 現象을 直視 할 때 一般化의 眞正한 意味를 會得 할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가티 韓氏의 該論文을 槪觀하면서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를 나는 鮮明하지는 못하나 大畧 말하엿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韓氏의 그 論文을 造成한 五個의 部分을 따로따로 떼어 吟味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哲學의 俗流化를 장만한 것 以 外엔 아무것도 내놀만한 것이 되지 못

함을 보이겟다.

驚異는 哲學의 母라고 흔히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驚異에서부터 學的 思索이 始作되엿다고 말하고 『헬발트』는 疑惑이 그것의 起源이라고 하엿다. 그러면 이 驚異라든가 疑惑이라든가는 어써한 것인가가 問題이나 오직 知的 欲求에서 湧出한 『가오스』와 不安에 對한 反省과 探求라고만 할 것인가 事實로 놀래지 안는 (ou thaumazein)곳에는 哲學은 始作되지 안는다. 그러나 우리는 一步를 進하야 왜 놀래며 疑惑하게 되엿는가를 追跡하여 보지 안코는 마지 안흘 것이다. 漠然한 驚異와 疑惑이 무턱대고 『알기를 조화하고 뭇기를 조화하는』態度가 『萬物의 實在와 意義를 愛知코자하는』것이라고 할 것인가 切實한 驚異와 事象에 卽 한 疑惑은 往往 天才的 閃光으로 우리의 偉大한 敎育者(Paidagogos)들의 머리를 둘노앗다. 그러나 그 驚異와 疑惑의 閃光이 비치게 됨에는 반드시 그것의 背後에 規定的 條件이 잇슴을 發見 할 것이다. 우리는 學의 發生을 促進케한 『이오니아』地方의 社會的 情勢를 忘却하지 못할 것이니 神活(Mythos)로부터 理論(Logos)에 그리하야 移住 商貿로 因하야 文化財의 取入이 始作되고 또 이것과 前後하야 天文地理現象에 對한 運動이 生起하게 됨을 싸러 그들에게는 所謂 哲學的 思索(Philosphieren)이 싹돗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哲學史의 初步를 論述하는 煩雜을 避하려 하거니와 矛盾업시 合理的으로 解釋만하면 哲學의 任務는 完成되고 싸러서 『大體로 生存의 批判인』哲學의 意識도 終了된다는 韓氏의 所論의 淺短한데에는 그것이 煩□임에도 不拘하고 漸間 徹底 할 必要를 늣기는 것 가트다.

그들은 生産 部門에 잇서서의 不絶한 活動을 進行하는 同時에 暴君과 傳統에 對한 反省과 打破를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自己 自力을 알기 始作하엿다.』그리하야 一種의 精神的 閑暇(Skhole)를 어덧다. 이것은 決코 非活動的 退의 것이 아니고 潑□한 實踐 中에서 어든 忙中閑이엇다. 그들은 이 忙中閑을 『필로소포스』(愛知者)로서 보냇다. 實踐에서 어든 驚異와 疑惑은 그들에게 새롭은 營爲와 發展을 齎來케 하엿스니 이 때에 비로소 驚異는 哲學의 母라는 眞面目이 動하게 되는 것이다.